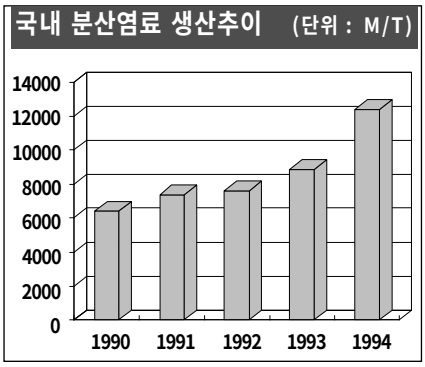
분산염료 시장침체 "위기"

중국·인디아산 침투에 신증설 경쟁까지 … 가격도 정체

매년 10%이상의 안정된 수요증가로 성장을 거듭해온 분산염료시장이 95년들어 수요정체와 가격하락의 이중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하반기에도 시장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상반기 분산염료시장은 수출물량의 대폭적인 감소와 국내 수요기업과의 마찰 및 그에따른 수요정체로 가격이 묶이는 등 시장악화가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은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염료산업의 가장 큰 현안인 수출다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93년 이후 타시장을 급속히 대체해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분산염료시장이 오히려 장기침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 CRI

94년기준 분산염료 생산량은 LG화학을 비롯 동양화학, 대영산업, 휘우산업, 대도물산, 이화산업, 경인양행, 태흥산업 등 9개 기업이 1만2381톤을 생산 93년 8851톤에 비해 무려 3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92년 3.4%, 93년 16.4%의 증가율과 비교하여 급성장한 것으로 수요 또한 94년 1만5000톤에 이르러 전체시장규모가 10%이상의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그러나 분산염료시장은 95년 들어서면서 중국·인디아 등의 저가물량이 상당량 국내 유입된데다 수요기업에서 합섬원료 가격상승 부담을 타개하기 위해 염료쪽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하는 등 가격과 수급면에서의 이중고가 뚜렷이 나타나 예년의 안정성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우기 95년 상반기 평균 수입물량이 수출물량의 3배에 이르는 등 일부 그레이드를 제외한 시장악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LG화학이 95년 3/4분기 가동을 목표로 현재 연산 4300톤에서 5500톤으로 증설하는 것을 비롯 오영산업이 연산 1800톤규모로 분산염료시장에 뛰어드는 등 일부기업의 신증설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시장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내 분산염료기업들은 이같은 가격 및 수요정체의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기초원료인 아닐린유도체가 95년 하반기 석유화학원료 상승폭에 자연스럽게 연동한다는 점을 이유로 분산염료의 동반상승을 기대하고 있으나 수요기업의 심한 반발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체 가격흡수문제로 인해 별다른 시장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6월 분산염료가격은 전체 원료시장의 가격강세에도 불구하고 파우더가 Kl당 1만원, 액상이 Kl당 5000~6000원사이로 94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시장악화를 반영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5/6/19>